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4월 17일(월) 15시 30분: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편집회의
- 4월 19일(수) 16시: 흐름출판사 출판 작업

## ■ 연구원 소식

### 55차 문화 강좌 (5월 13일)

지난 54차 문화 강좌에 이어 55차 문화강좌가 당초 예정되었던 강사인 이정욱 감독의 사정으로 4월 29일(토)에서 5월 13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55차 문화강좌는 <한국 무협 영화의 역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무협 영화 배우 왕호부터 거룡, 차룡 그리고 오늘의 정두홍까지 이어지는 무협 영화 배우와 영화의 역사를 만나는 55차 문화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3년 1차 역사문화기행 (4월 15일~16일)

4월 15일(토)과 16일(일) 이틀에 걸쳐 2023년 1차 역사문화기행이 전남 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열 네분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역사문화기행은 전남 구례 오산 사성암 탐방을 시작으로 지리산 천은사에서 불교 수행자의 일상을 1박 2일동안 체험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 역사문화기행 이모저모



## ■ 역사속의 오늘

### 사북의 봄 - 1980.4.21.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가 있는 정선 사북읍. 원래는 석탄의 고장이었다. 2004년 10월 29일 채탄(採炭)을 마지막으로 11월 1일 문을 닫기 전까지는. 지금은 밤에도 네온싸인이 번쩍이는 카지노의 땅으로 바뀌었지만 1980년 당시, 사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검은 얼굴에 검은 차림이었다. 검은 얼굴, 검은 손을 하고서 탄광을 나선 이들은 탄을 캐는 산업 전사. 그들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의 광부들이었다.

당시 사북 동원탄좌에서 캐내는 석탄은 전국 생산량의 9%. 광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3교대로 개미집 같은 막장을 드나들었다. 동원탄좌는 타 업체에 비해 정년도 빨랐다. 정년 45세로 묶여있는 동원탄좌에서 밀려나면 그들은 하청 탄광으로 몸을 옮겼다.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탄을 캐고 나르는 일 밖에 없었다.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싶어 진폐증에 걸렸어도 애써 병증을 숨기며 일을 했다.

그러던 탄광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났다. 1980년 4월 21일이었고, 신군부의 총칼이 서늘하게 빛나던 봄날이었다. 이른바 '사북사태'다. 민주화의 봄이 왔다지만 모두들 숨죽이고 있던 그때, 따스한 봄날 광부들이 채탄을 거부하고 경찰과 마주섰다. 사건의 발단은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인 이재기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미 광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어용노조 지부장이었다. 광부들은 사북사태 이전부터 노조 지부장 이재기의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경찰과 사북읍사무소가 약속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자 광부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지부장인 이재기는 경찰 개입을 요청했고 경찰 50여명이 동원탄좌로 출동했지만 숫적으로 밀린 경찰이 지프로 광부들을 치고 달아났다.

회사 편을 드는 어용노조가 사북사태의 불씨를 제공했다면, 뇌관을 폭발시켜 거대한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찰이 제공했다. 사북사태의 발단은 어용노조와 싸우려는 노동자의 저항,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소박한 요구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경찰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인권을 무시당한 노동자들로부터 불만을 샀고, 결국 이러한 불만이 사북에서 경찰 공권력을 몰아내고 지역을 장악한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어용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한 싸움이 경찰과의 싸움으로 전이 되면서 많은 부상자와 구속자를 냈다.

4월 22일 '안경다리 전투'에서는 경찰의 사망자도 나왔다. 최루탄을 쏘며 동원탄좌로 진입하던 경찰에 맞서 광부들은 사북역 태백선 철로 위에서 돌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사북사태 당시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안경다리. 노동자들은 다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다.**

22일 오후 칼빈총으로 무장을 한 경찰은 광부들에게 대패했다. 경찰은 사북을 떠났고 그 때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사북은 광부들의 해방구였다. 광부들은 고한과 증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고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기자들이 취재를 했으나 신군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23일 급기야 공수부대가 사북에 투입된다는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해졌다.

당시 강원도지사와 도경국장이 '항쟁'지도부(당시 신군부에 처벌받은 이들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현재 사북항쟁동지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 시간 공수부대는 원주에 있었으며 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였으나 당시의 권력 구도로 미루어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않았다. 항쟁 지도부는 동원탄좌에 1,000여점의 소총과 사북 전체를 날리고도 남은 다이너마이트 60여톤이 있다며 공수부대가 투입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협상단에게 알렸다.

당시 사북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자와 피해가 났을 것이 분명했다. 협상단은 그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23일 낮부터 시작된 협상은 다음날 새벽1시가 되어서야 끝을 맺었다.

지도부는 억류해 놓았던 이재기 노조위원장의 아내 김순이씨를 경찰에 인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24일 오전이었다. 상황은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다. 광부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으며 사북거리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수습되었다.

합의 당시 노동운동 관련자 선처와 노동인권 개선을 약속했으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반은 4월27일부터 체포 대상자 조사에 들어갔다. 급기야 5월 6일에는 회의를 핑계로 노동자 대표들을 모은 뒤 체포하는 수법까지 동원되었다.

계엄사령부는 8월 4일 81명을 계엄군법회의에 회부했으며 주동인물 이원갑·신혁이·신경·조행웅·신천수 씨 등 31명을 구속했다. 군부 조사실로 끌려간 81명은 각종 고문과 구타로 석방하자마자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동안 병치레를 했다.

1980년 사북의 봄은 계획된 노동운동이 아니었다.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탄광기업주, 노동자는 외면하고 회사 편이 된 노조간부, 회사와 노조간부만 두둔하면서 노동자를 멀리한 경찰의 삼박자가 빚은 우발적 사태였다.

사북 탄광촌은 이제 탄광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대신 강원랜드가 들어섰다. 탄광촌은 카지노 마을로 변했지만 여전히 사북은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지도부인 이원갑, 신경 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래 사북 민주항쟁 기념식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지만 사북이 견뎌야했던 오욕의 세월을 참회하는 이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목욕탕도 없이 검은 손, 검은 얼굴 그대로 성냥곽같은 사택으로 돌아오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에 부당한 공권력 집행과 이후 신군부의 불법적인 연행 구금에도 불구하고 사북은 '항쟁'이 아니라 '폭동', '난동'의 지역으로 굳어졌다.